

2023년 디지털 산업 이슈&트렌드 총결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요약

- 이슈페이퍼 23-12호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매월 디지털경제연구원에서 선정한 12개의 키워드를 살펴보고, 2023년 디지털 산업 트렌드와 사회·경제적 변화 및 그에 따른 제도적 논의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조망하고자 함
-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정된 핵심 키워드는 AI, 메타버스, OTT, 토큰증권, 스타트업, 비대면 진료, 로톡, 정부, 규제 등으로 플랫폼 산업에 대한 논의가 기술 중심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도화된 기술과 서비스, 산업 및 일상의 변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논의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
 - 올해는 특히 ChatGPT의 등장과 함께 AI 산업 주도권 경쟁, 사회적 파장, 제도 변화 등 AI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음
 - 더불어 스타트업 투자 위축, 전문플랫폼 관련 주요 심의 결과 등 스타트업 생태계의 명암을 드러내는 이슈가 자주 등장함
- 12월 국무회의에서 국내 플랫폼을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 도입을 예고하였으며, 최근 해외 기업들의 국내 플랫폼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 국내 디지털 산업의 침체가 우려됨

1월의 키워드: ‘글로벌’

- 디지털 분야의 다양한 부문에서의 성장세 둔화와 위축된 시장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해외 진출을 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하면서 ‘글로벌’이 화두로 등장함
- 특히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전략으로 내세우는 경향이 두드러짐
 - 게임산업은 장르의 다양화와 플랫폼 다각화(모바일, PC, 콘솔 등)을 통해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 OTT업계와 웹툰산업 등의 경우에도 한국산 콘텐츠를 무기로 새롭게 해외 시장에 진출하거나 점유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임
- 더불어 초거대 AI 모델 개발과 해당 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함에 따라, AI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

2월의 키워드: ‘챗GPT’

- ChatGPT의 출시 이후, 주요 테크 기업에서 ChatGPT와 결합한 서비스 혹은 대항마 제시를 예고하면서 생성형 AI 경쟁이 점화됨
 -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색엔진인 Bing에 ChatGPT를 탑재하여 크게 주목받았으며, 구글은 이에 대항하는 인공지능 챗봇 바드(Bard)를 출시함
 - 이후 네이버와 바이두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챗GPT에 대항할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의 출시를 예고하면서 후발주자로 나섬
- AI 기반 스타트업들은 특정 전문영역에 한정된 생성형 AI를 개발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함
- 각 부처에서도 AI 기술 진흥을 위한 예산 투입,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논의하며 생성형 AI 상용화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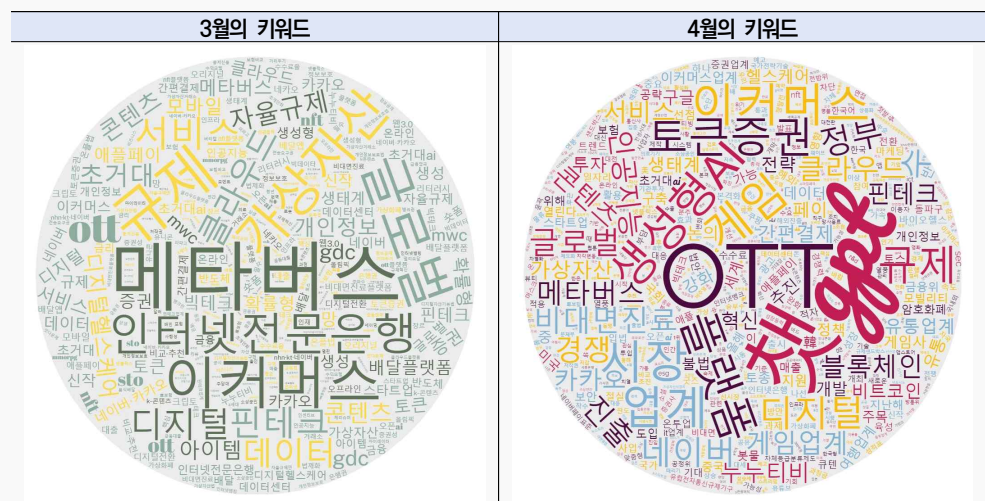


3월의 키워드: ‘메타버스’

- 생성형 AI의 발달은 정교한 메타버스 환경 구현에 기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메타버스의 상용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됨
- 3월 열린 ICT 관련 세계 주요 행사에서 메타버스가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함
 - 모바일산업 분야 최대 박람회인 MWC2023(Mobile World Congress 2023)에서 메타버스가 주요 영역으로 자리함
 - 북미 최대 게임 컨퍼런스인 GDC2023(Game Developers Conference 2023)에서도 블록체인, 인공지능과 더불어 메타버스가 주요 키워드로 부상함
- 더불어 국내에서는 메타버스 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로드맵과 규제 기준의 구체화 움직임이 포착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선제적 규제개선 로드맵을 통해 ’자율규제, 최소 규제, 선제적 규제혁신 등 세 가지 기본원칙을 발표함

4월의 키워드: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 세계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OTT를 둘러싼 제도 정비와 지원이 이어짐
- 문화체육관광부의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에 따라 OTT 기업들의 콘텐츠 공급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OTT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펀드’ 조성을 예고함
- 한편 불법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콘텐츠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한 논의가 시작됨



5월의 키워드: '규제'

- 5월은 플랫폼, AI, 가상자산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짐
- 특히 연초부터 주목도가 높았던 생성형 AI의 발전은 기술의 활용과 동시에 기술의 통제 논의가 지속되며 AI 관련 제도의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짐
-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5월 11일 「가상자산 이용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며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법적 규제 전망 논의가 다뤄짐
- 반면 작년 8월부터 준비되어온 플랫폼 자율규제안이 발표되며 플랫폼 산업의 자율규제 논의와, 동시다발적으로 상정된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뤄짐

6월의 키워드: 'AI'

- ChatGPT가 등장한 이후, 지속적으로 다뤄지는 키워드지만, 이제는 특정 기업의 서비스를 넘어 AI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한 전반적 논의가 이루어짐
- 특히 6월 9일 ChatGPT의 창시자 샘 올트먼이 방한하며 AI 반도체 공동개발, 한국 스타트업과의 협업 등을 예고하였음
- 한편,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의 공격적 공략에 맞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으며, 유통, 미디어, 금융, 의료 등 여러 분야의 AI 도입이 가시화 되고 있음을 확인
- 향후 AI 패권의 향방에 대한 전망이 논의되며 AI 관련 입법 및 국제기구 설립 필요성이 논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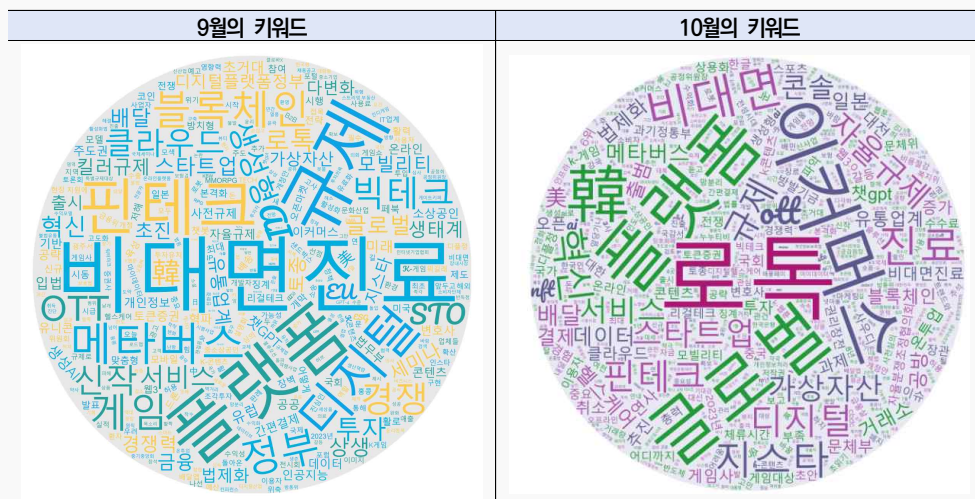


9월의 키워드: ‘비대면진료’

- 한시적으로 초진과 재진의 구분이 없는 비대면 진료가 세 달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되어 높은 주목을 받음
- OECD 주요 국가들은 팬데믹으로 비롯한 자국민의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장려하고 있으나, 한국은 초진환자의 이용이 불가능하고 약 배송이 금지되는 등의 단서 조항으로 인한 많은 제약이 따름
 - 프랑스는 모든 의료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일본은 의사와 환자 간의 충분한 정보 전달을 전제로 비대면 초진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
- 의료계는 명확하지 않은 지침의 위반 우려 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고 있으며, 관련 플랫폼도 대부분 사업을 철수·축소하고 있어 비대면 진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목적을 분명히 하자는 기사들이 확인됨

10월의 키워드: ‘로톡’

-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하였으나, 법무부는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해 주목받음
- 사실상 법률 온라인 플랫폼이 운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며,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됨
 -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주변에 알고 지내는 변호사가 없어 상당한 탐색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변호사 이력과 상담 비용, 이용자 후기, 유사 사건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게시하는 플랫폼을 통해 비용 감축이 가능
- 이와 유사한 전문 직역에서의 기존 업계와 플랫폼 서비스 간 마찰이 다수 일어나고 있으며, 로톡 사례가 신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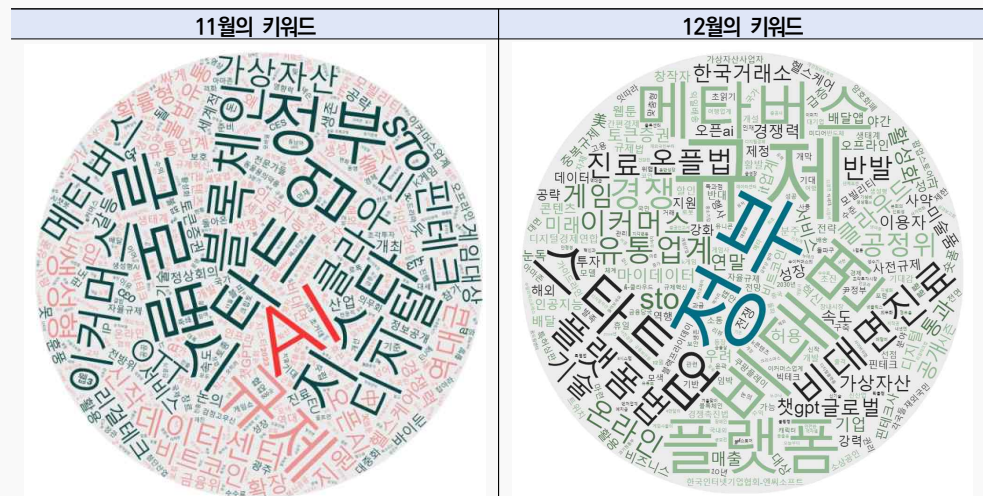


11월의 키워드: 'AI'

- AI는 지난 6월에도 주목받는 키워드로 선정된 바 있으며, 6월에는 AI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한 전반적 논의들이 주를 이룸
- 11월에는 AI가 맞춤형 제품 추천부터 대화 자동 통역, 심지어 판사 대신 판결 문은 쓰는 등 전 산업군에서 기존 비즈니스에 생성형 AI를 접목해 우리 일상 생활에 밀접하게 스며들어 있다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음
- AI는 모든 산업과 문화의 기반 기술이라 그 중요성이 매우 크며, 미래 사회가 가져다주는 위협에 생존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AI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관련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12월의 키워드: '정부'

- 정부는 플랫폼 생태계의 민생문제와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음
 - 플랫폼 업계도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추진 및 이행했으며, 정부 부처, 중소기업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다양한 상생 방안을 도출하였음
- 하지만 정부는 12월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내용을 기반으로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추진을 논의
 - 시장을 좌우하는 주요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금지행위를 미리 정하고, 부당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제재한다는 내용
- 관련 업계는 사전 규제적 성격을 가진 법이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어 대다수 강경하게 비난하는 기사들이 확인됨
 - 진입 장벽 없는 디지털 환경에서 중국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국내 사용자 증가 1, 2위로 오르는 등 결국 소상공인과 소비자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



2023년 주요 키워드 종합

- 2022년도 말 등장한 ChatGPT의 파급효과로 생성형 AI 산업의 주도권 경쟁, 사회적 파장, 제도 변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짐에 따라 2023년 전반에 걸쳐 가장 지배적인 키워드는 AI
 - 상반기에는 먼저 등장한 서비스인 ChatGPT에 이목이 집중되었던 반면, 점차 주요 테크 기업들이 각각 생성형 AI를 접목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경쟁에 합류하면서 인공지능이 ICT 산업계의 주력 기술로 주목됨
 - AI 서비스 상용화로 AI 제도화 논의가 주요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배적 사업자가 없는 반면 큰 시장을 가진 EU는 초거대 AI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현재 AI 개발의 비교 우위에 있는 미국은 先성장 後규제 입장을 견지함

- 더불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명암을 극명히 드러내는 이슈가 다수 등장함
 -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스타트업 생태계에 전반적인 투자 위축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제도적으로도 스타트업 성장에 부정적인 규제안이 발의되는 등 앞으로도 이러한 분위기가 유지될 전망
 - 일례로 팬데믹 시기 장려되었던 비대면 진료는 국내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지침, 초기진입을 어렵게 하는 단서 조항 등으로 축소되는 추세에 있음
 - 그럼에도 최근 장기에 걸쳐 기존의 전문 직역 단체와 갈등이 있었던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긍정적인 법무부 심의 결과가 나오면서, 현재까지 업계와 마찰을 빚으며 사업에 어려움을 보였던 스타트업의 향방에 긍정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예측됨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본격화와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침체국면에도 정부는 플랫폼 규제를 더 강화할 것을 예고하였으며, 생성형 AI 분야의 경쟁 심화와 중국 기업 국내 점유율 확대 등 시장 변화와 맞물려 내년 국내 디지털산업의 침체가 우려됨
 - 12월 국무회의에서는 주요 플랫폼에 대한 사전적 규제 추진을 논의하였고, 향후 국내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를 보임
 - AI를 필두로 한 기술경쟁과 국내 시장에서의 글로벌 서비스 경쟁에 노출된 국내 플랫폼은 국내 규제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 활동의 큰 제약과 경쟁력 약화가 예측됨